

藏書閣 소장 일제강점기 儀軌의 미술사적 연구*

박 정 혜**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 李王職과 儀軌의 제작
- III. 畫員 및 所用物種 관련 기록
- IV. 眞殿 및 御眞摹寫 관련 기록
-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일제강점기(1910-1945)에 제작된 20종 총 37건의 의궤가 唯一本으로 소장되어 있다(〈표 1〉 참조).¹ 대한제국기의 황실이 李王家로 규모와 위의 면에서 위축되었지만, 왕실의 업무를 담당한 李王職에서는 왕실의례의 설행과 王室典禮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나갔다. 물론 대한제국기와 비교하면 왕실의례의 규모나 빈도는 줄고 종류도 제한되었지만 喪禮, 御眞摹寫와 眞殿의 보수, 祭禮의 시행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왕실전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물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¹ 일제 강점기 의궤에는 「附儀軌」 혹은 「儀軌事目」 같은 의궤 편찬에 관한 항목이 빠지고 「傳教」나 「筵設」에 해당하는 「下教及上啓」에도 의궤 편찬에 대한 지시내용이 전혀 없어서 몇 건을 출간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표 1 장서각 소장 일제강점기 의궤 일람표 (시대순)

번호	년도	책명	편찬처	책수/장수		인장	청구 기호
1	1911	純獻貴妃禮葬儀軌	禮葬所	2책/245장	朱絲欄 彩色圖說	奉讓堂印	2980
2-1	1911	純獻貴妃園所儀軌	園所	69장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341
2-2		純獻貴妃園所儀軌	이왕직	36장	이왕직과제, 채색도설	藏書閣印	2342
3-1	1911	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	이왕직	2책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978
3-2		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	영취원	1책 만 존재	이왕직과제, 채색도설	장서각인	2979
4-1	1919	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빈전흔전주감	2책/322장	朱絲欄	봉모당인	2919
4-2		高宗太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이왕직	2책/322장	이왕직과제	장서각인	291807
5-1	1919	洪綾遷奉山陵主監儀軌	천봉주감	1책/180장	烏絲欄	봉모당인	2388
5-2		洪綾遷奉山陵主監儀軌	천봉주감	1책/178장	이왕직과제		2387
6-1	1919	洪綾遷奉主監儀軌	천봉주감	1책/345장	朱絲欄 彩色圖		2389
6-2		洪綾遷奉主監儀軌	이왕직	171장(上冊)	이왕직과제		2391 16-0004
6-3		洪綾遷奉主監儀軌	이왕직	174장(下冊)	이왕직과제		2390
7-1	1919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어장주감	3책/510장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920
7-2	1926 이후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어장주감	2책	圖	장서각인	2922
7-3	1926 이후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이왕직	3책 중 1책	이왕직과제, 圖	장서각인	2921
8-1	1919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	산릉주감	1책/96장	주시란	봉모당인	2284
8-2		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	이왕직	1책/94장	이왕직과제	장서각인	2285
9-1	1921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	부묘주감	2책/287장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218
9-2	1926 이후	高宗祔廟主監儀軌	이왕직	2책/287장	이왕직과제, 圖	장서각인	2217
9-3	1923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	이왕직	2책/287장	주시란, 圖	장서각인	2219/ 문화재 권터국
10-1	1926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	어장주감	3책	朱絲欄 채색도설	봉모당인	2976
10-2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	이왕직	제2책 만 존재	이왕직과제	帖裝	2977
11	1926	純宗孝皇帝山陵主監儀軌	산릉주감	1책/100장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339
12	1926	純宗孝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빈전흔전주감	2책/310장	주시란, 채색도설	봉모당인	2975
13	1926	裕綾遷奉山陵主監儀軌	산릉주감	1책/40장	朱絲欄	봉모당인	2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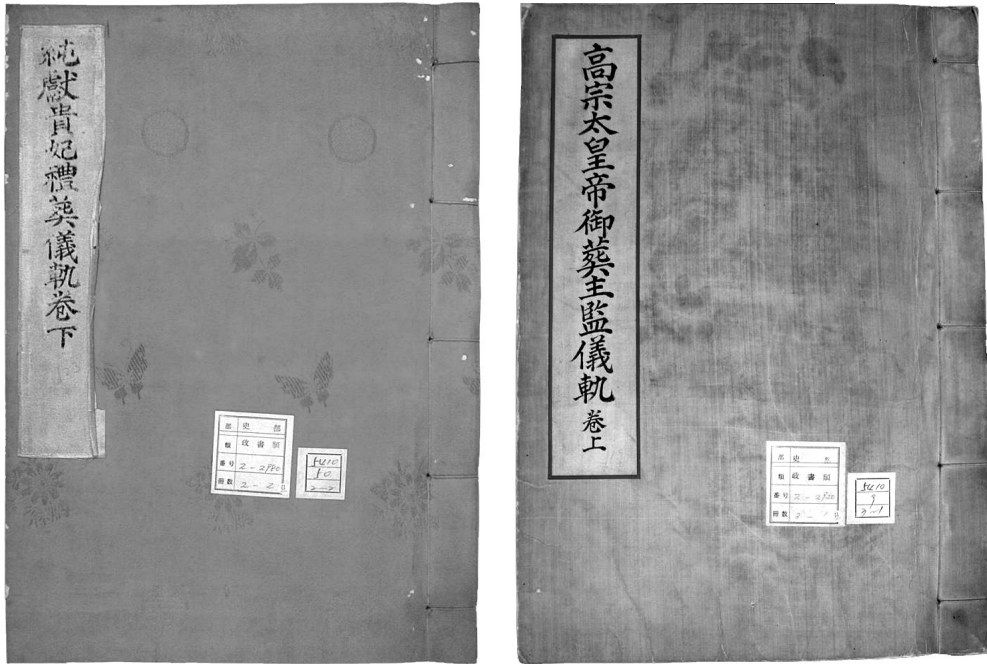
14-1		裕陵遷奉主監儀軌	천봉주감	2책/290장	朱絲欄	봉모당인	2359
14-2	1926	裕陵遷奉主監儀軌 (표제: 純明孝皇后遷奉主監儀軌)	천봉주감 (이왕직)	2책/300장	朱絲欄	장서각인	2338
15-1	1928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	부묘주감	2책	朱絲欄	봉모당인	2250
15-2	1928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	부묘주감	제책 단 존재	朱絲欄 圖	劉海鍾印	4772
15-3	1940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	李王職	142장 1책/145장		장서각인	2252/ 문화재관리국
16	1907~11	各宮園義軌	장례인	1책/7장	오사란		2403
17	1932	肇慶壇睿慶墓永慶墓營建廳義軌	비서인	2책/413장			2-3582
18	1935	各陵儀軌	이왕직	1책/37장		장서각인	2276
19-1	1935	廟殿宮園壇墓義軌	이왕직	1책/14장			2444
19-2		廟殿宮園壇墓義軌	이왕직	1책/14장	주사란	장서각인	2445
20-1	1910~45	宗廟永寧殿義軌	이왕직	1책/14장	주사란	장서각인	2-2187
20-2	1942	宗廟永寧殿義軌	이왕직	1책/12장	오사란, 무관심		2-2188
21	1926~30	裕陵遷奉時班次圖 (표제: 발인반차도)	이왕직	1책/261장	油印版及寫本	장서각인	2-2950

례였으며 의궤 편찬의 전통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의궤는 1911년 純獻貴妃(1854~1911)의 禮葬, 1919년 高宗(1852~1919)의 御葬, 1926년 純宗(1874~1926)의 어장, 고종과 순종의 祔廟, 고종과 순종의 山陵인 洪陵과 裕陵의 遷奉에 대한 의궤가 중심을 이루며 나머지는 각 궁과 陵園, 宗廟와 永寧殿에 관한 祝式義軌가 차지한다(도1).²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의궤는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³ 그 이유로 일제강점기에는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의궤제작의 빈도가 감소하고 내용도 빈약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며, 마지막 황제인 순

² 일제강점기의 축식의궤는 기존의 축식의궤를 필요에 따라 다시 필사하거나 변화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축식의궤는 성격상 미술사적인 자료가 매우 빈약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³ 『藏書閣所藏儀軌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 참조. 최근 고종 및 순종의 국장과 산릉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시기의 의궤 일부가 이용되었는데, 張慶姬 「高宗皇帝의 金谷 洪陵 研究」, 『史叢』 64(歷史學研究會, 2007. 3), pp. 1-70; 同著, 「고종황제 금곡 홍릉의 석조각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예경, 2007), pp. 509-536; 김이순, 「洪陵과 裕陵의 石物彫刻 연구」, 『미술사연구』 제21호(2007. 12), pp. 295-328 등이 있다.



도1 『純獻貴妃禮葬儀軌』(1911년) 및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1919년) 표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종의 재위 이후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뒤에는 의례의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0종의 의례 가운데 순헌귀비·고종·순종의 喪禮와 관련된 일련의 의례, 즉 殯殿魂殿·御葬·山陵·祔廟儀軌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의례의 특징과 미술사적 자료의 성격을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종과 순종의 부묘의례, 즉 1921년의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祔廟主監儀軌』 및 1928년의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 下卷에 수록된 고종 어진 이봉과 순종 어진 모사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의례는 아니지만 같은 장서각 소장품인 1935-1936년 璿源殿의 世祖 및 元宗御眞을 모사했던 사실을 기록한 『璿源殿御眞摹寫譜錄』(K2-2754)과 1934-1935년 新璿源殿의 영정 보수 사실을 기록한 『璿源殿御眞修飾譜錄』(K2-2755)도 보조자료로서 함께 다루려고 한다. 두 건의 등록은 일제강점기 진전과 어진 모사 및 보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부묘주감의례의 고종 어진 이봉 및 순종 어진 모사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초점은 일제강점기 국상과 관련된 일련의 의례에 나타난 미술사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같은 시기 진전의 어진 봉안과 모사에 대한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맞추어 질 것이다. 아울러 1928년과 1935년 어진 모사의 主管書師였던 金殷鎬(1892~1979)가 御容書師로서 활동한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⁴ 이러한 작업은 이왕가에서 실행된 왕실전례의 변모된 양상을 말해줄 것이며 이왕가가 유지한 전통적인 왕실미술의 일단을 규명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일제강점기 李王職과 儀軌의 제작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세워지고 이와는 별도로 일본 황실 및 황족의 사무를 전담하는 宮內省 소속의 李王職이 설치되었다.⁵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친족으로 간주하여 天皇家의 하부단위인 王·公 급으로 편성, 李王家로 격하시켰다. 이왕직의 기능은 대한제국기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宮內府를 계승하여 이왕가의 ‘王族 및 公族의 家務를 관장하는 것이었다.⁶ 이왕직이 궁내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계승하였음은 『高宗實錄』, 『純宗實錄』, 『日省錄』의 편찬과 喪禮와 祭禮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왕실전례를 禮制에 따라 시행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왕실을 예우하고 왕가의 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례와 제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조묘, 역대 왕릉, 종묘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통적인 예제를 유지하였다. 이는 『肇慶宮寢慶墓永慶墓營建廳義軌』, 『各宮園義軌』, 『宗廟永寧殿義軌』, 『各陵義軌』, 『廟殿宮園壇廟義軌』 등의 축식의례 편찬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표 1〉 참조).

凶禮는 국가의례 중에 가장 큰 행사였으며 이왕직에서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왕실전례를

⁴ 그동안 김은호의 어진 제작에 대해서는 그의 회고록인 『書畫百年』과 이구열이 김은호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書壇一境』에 기초한 사실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은호 『書畫百年』(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이구열 『書壇一境』(동양출판사, 1968).

⁵ 신명호, 「일제하 이왕직과 이왕가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제11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 91-114; 이지선·야마모토 하나코, 「『職員錄』을 통해서 본 李王職의 職制 연구」, 『東洋音樂』 26호(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pp. 1-26.

⁶ 『純宗實錄』附錄 1910年 8月 29日 「大日本天皇陛下詔書」 및 『純宗實錄』附錄 1910年 12月 30日 「皇室令 제34호 李王職官制」 참조. 이왕직이 관할하는 이왕가의 범주에는 순종(昌德宮李王) 외에 고종(德壽宮李大王), 왕세자(英王; 李垠, 1897-1970), 李熙 公(興親王; 李載冕, 1845-1912), 李垞 公(義王; 1877-1955) 등이 포함된다. 이왕직의 직제 변화와 대한제국기 궁내 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신명호 위의 논문, pp. 101-102 참조

시행한 것도 純熈嬪妃·高宗·純宗의 喪禮, 고종 및 순종의 祈廟, 고종의 洪陵 및 순종의 裕陵 遷陵에 대해서였다. 일본은 고종과 순종이 승하하자 이왕직의 주관 아래 殯殿魂殿主監, 御葬主監, 山陵主監을 설치하여 장례를 준비하였다.⁷ 또한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부묘레도 祈廟主監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왕실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종묘 祭禮를 온전한 모습으로 거행하였다. 그러나 예전의 '國葬都監'은 '御葬主監'으로 격하되고⁸ 의례의 편찬도 겨우 형식적인 체제만 유지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조선왕실을 예우한다는 가시적인 표현은 옛 황실에 대한 회유의 성격이 강하였다. 현재 장서각 소장의 일제강점기 순헌귀비, 고종, 순종과 관계된 의례는 모두 어람용으로서 붉은 채색으로 印札되었으며 순헌귀비 관련 의례는 붉은색 비단으로, 나머지는 모두 황색 비단으로 고급스럽게 表裝되었다(〈표 1〉 참조).

한편, 부묘에 앞서 왕의 어진을 궁궐 안의 眞殿으로 移安하는 전통에 따라 진전의 정비와 어진의 제작이 부묘레에 부수되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는 어진도사 혹은 모사에 대한 의례를 따로 만들지 않고 해당 부묘주감의례의 맨 뒤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고종태황제·명성태황후]부묘주감의례』의 「中和殿御眞奉安璿源殿日記」와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묘주감의례』의 「御眞摹寫及奉安日記」가 그것이다.

고종과 순종 어장의 三主監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摠護使에서 摠護員으로 바뀌었다. 고종 때에는 子爵 閔英奎가, 순종 때에는 侯爵 尹澤榮이 각각 총호원으로 임명되었다.⁹ 각 주감의 주요업무와 제조, 도청, 낭청, 감조원, 별감등으로 구성된 조직의 업무는 조선시대와 동일하다. 그런데 순종 어장의 경우에는 제조 대신에 提擧라는 직함으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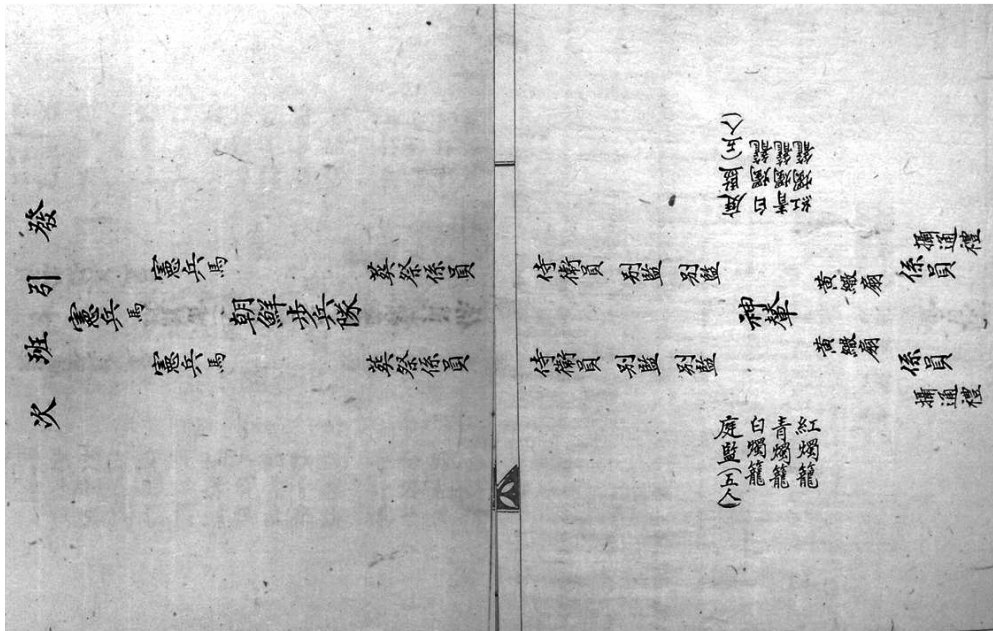
삼주감의 업무는 各房 혹은 各所가 아닌 總務系, 葬祭系, 會計系, 工作系, 接待系에서 분장하였다.¹⁰ 장제계는 殯殿·御葬·祭義의 典式을 담당하였으며, 회계계는 물건 구입과 공급, 회계를 관장하였다. 공작계는 산릉 조영과 설비사무를 맡았으며, 접대계는 勅使 및 御

7 嚴貴妃로 더 잘 알려진 순헌귀비는 명성황후의 시위상궁이었는데 명성황후 사후 고종의 총애를 입어 고종의 셋째 아들인 李根을 낳아 귀인에 책봉되었다. 1900년 10월 淳嬪으로 봉해지고 1901년 12월에 계비(淳妃)로 책봉되었으며(『[淳妃]冊封儀軌』 頁 13204), 1903년에는 皇貴妃로 진봉되었다(『[淳妃]進封皇貴妃儀軌』 頁 13214). 그러나 영친왕이 황제로 등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헌귀비의 상례에 대해서는 主監 대신에 禮葬所가 설치되는 등 한 단계 낮은 위의로 의례가 시행되었다. 이는 嬪宮魂宮'儀軌, '禮葬'儀軌, 園所'儀軌라고 명명된 의례의 표제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8 『純宗實錄』附錄, 1919年1月22日 참조.

9 순헌귀비 때에는 主務가 총책임을 맡고 그 아래에 助務, 屬, 備, 臨時備, 使丁 등이 일을 보았다. 주무는 종친으로서 대한제국기에 宗簿司 長을 역임한 李達鎬가 임명되었으나 곧 해임되고 궁내부 특진관을 지낸 척신 嚴株益(1872-1931)이 임명되었다.

10 『高宗大皇帝殯殿魂殿主監儀軌』 卷上 「事務分掌內規」 참조.



도2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發朝班次) 부분, 19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使의 迎送, 내빈접대를 담당하였다. 문서의 발송과 접수 등 다른 係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무는 총무계에서 관장하였다.¹¹ 각 계에는 主任을 두고 御親戚과 貴族을 고문으로 축탁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드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예전의 국장도감의례에는 예외 없이 發朝班次圖가 실리며 부묘도감의례에는 신주를 종묘에 봉안하러 가는 행렬이 그려졌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의례에는 행렬반차도가 그려진 예가 한 건도 없으며,¹² 모두 해당 위치와 숫자를 글자로 표시한 文班次圖이다(도2). 반차도는 발인 나흘 전에 各項義注와 함께 入啓되었는데 ‘摹寫’하여 들인다는 上啓를 보면 실제로 궁안에 내입된 것은 그림으로 그려진 발인반차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발인반차도 외에도 완성된 諡冊, 諡寶, 哀冊, 誌石의 印本도 1-2건 粘帖하여 올렸으며 15-20건 가량을 分兒하였다.¹³

¹¹ 순종의 어장에서는 총무계가 서무계로 바뀌었고 능침조영과 설비 사무를 회계계가 한꺼번에 맡았다.

¹² 장서각에는 『發朝班次圖』라는 표제가 쓰인 책(K2-2950)이 한권 있는데(〈표1〉 참조), 1920년대 관청에서 참조하던 각종의 班次式을 모아 엮은 것이다. 작성 방식도 필사, 먹지 필경, 유인판 인쇄 등 다양하다. 관청에서도 그림으로 그려진 반차도는 예전처럼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¹³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卷上「時日」참조

의궤의 행렬반차도가 문반차도로 대체된 것은 의궤 편찬의 간소화와 사진의 보급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절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순종의 국장에 대해서는 『御葬儀寫眞帖』같이 훨씬 자세하고 현장감 있는 시각적 기록이 남아 있다.¹⁴

미리 반차도를 내입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의 관행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의례를 거행하기에 앞서 謄錄을 상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喪禮補編』과 같은 조선시대의 禮書를 적극 참조하였다. 예를 들어 誌石을 『상례보편』에 의거하여 磁器로 할 것인지 前例를 따라 烏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알 수 있다. 상고와 논의를 거쳐 순헌귀비의 지석은 자기로 결정되고 고종과 순종의 지석은 오석으로 제작되었다.¹⁵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도 빈전에서의 의식, 혼전에서의 제사, 의물의 제작, 발인, 산릉의 조성, 복식 등의 절차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정해진 예제에 준하여 치러졌으며 앞선 의궤를 상고하고 『상례보편』같은 예서를 참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의궤는 이전처럼 자세한 종합적인 보고서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행사일정, 좌목, 하교, 의주, 의물의 제작방식, 상전 등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節目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나 물자의 수급과 사용, 인력 동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없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왕실전례의 실행과 그 기록에 대한 상세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형식적이나마 왕실전례의 대략적인 실행 양상을 주감의 설치와 의궤의 편찬을 통해 알 수 있었다.

III. 畫員 및 所用物種 관련 기록

1. 畫員의 역할

일제강점기 의궤는 기록 자체가 소략하기 때문에 미술사 관련 자료도 조선시대에 비해 매우 단편적이다. 빈전혼전의궤에 나타나는 화원 관련 내용은 上卷의 「改鎡旌書寫式」, 「書上字式」, 「官衣書黼式」에서 발견된다. 壙中鎡旌 및 行路鎡旌 등 명정에 글자를 쓰고 補劃하는 鎡旌書寫, 재공 위에 ‘上’자를 쓰는 書上字, 大官衣와 壙中官衣 등에 24개의 도끼 문양을 그리는 官衣書黼는 여전히 화원의 몫이었다(도3). 색깔이 정해져 있는 도끼문양의 起書에는

¹⁴ 『御葬儀寫眞帖』 4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참조. 이외에도 『純宗國葬錄』(朝鮮博文社, 1926)이 있다.

¹⁵ 『純獻貴妃禮葬儀軌』 卷上 「下教及上啓」 7월 21일 참조.



도3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中棺衣畫),
19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변함없이 泥金, 泥銀, 唐粉, 三靑, 二靑의 채색이 소용되었다. 어장주감에서 화원에게 맡겨진 일은 각종 櫃와 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고종과 순종 謚冊의 內函에 朱紅漆을 하고 윗면에는 니금의 雙龍雲氣紋을, 옆면에는 각각 海馬와 螭虎를 그렸다.¹⁶

대한제국기까지의 의례는 화원과 공장의 명단과 숫자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그 가치가 더욱 빛났다. 반면에 일제강점기 의례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 중의 하나는 화원 및 공장의 이름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純宗孝皇帝殯殿塋殿主監儀軌』 卷上 「易服諸具」에는 장례에 관여한 사람들의 易服에 필요한 물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畫師 4人’이 포함되어 있다.¹⁷ 이는 19세기나 대한제국기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나 순종의 국장에 적어도 4명의 화사가 동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빈 전혼전에서 필요한 회화 업무의 규모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순헌귀비나 고종 때에도 비슷한 수의 화사가 일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어장을 준비하고 진행한 관료들의 많은 수가 일본인이었지만 전통과 법식이 요구되는 의물의 제작에는 대한제국기에 많은 경험을 쌓았던 화원과 사자관들이 참여했음을 고종과 순종의 어장주감의례 「賞典」을 통해 알 수 있다. 虞主書寫補畫에 白黃玉, 書冊謄寫에 白黃甲, 梓宮書上字補畫에 全修默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¹⁸ 백만옥과 백만갑은 대한제국기 유명한 寫字主事로서 각종 書寫에 차출되었던 인물이며, 전수목(1858-?)은 대한제국기 도감의 회화 관련 일을 주도해나간 圖書主事 14명 중의 한사람이다.¹⁹

¹⁶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卷上 「謚冊」 참조

¹⁷ 『純宗孝皇帝殯殿塋殿主監儀軌』 卷上 「易服諸具」 참조 여기에 화사 4인은 典衛 2인, 相地員 4인, 虞主書寫補畫員 1인과 같은 항목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周衣, 頭巾, 行纒, 屈巾, 首經, 腰經, 白繩鞋을 착용하였다.

¹⁸ 『高宗太皇帝御葬主監儀軌』 卷下 「賞典」 및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 卷下 「賞典」 참조

고종 국장 때 백만옥은 7원, 백만갑은 10원, 美術品製作所員은 100원, 전수묵은 5원을 일한 대가로 받았다. 이외에도 백만갑은 장계계 소속 屬으로 명단에 올라 50원을 하사받았다. 순종 국장시에도 백만갑은 虞主書寫補劃을 하여 25원을 받고 전수묵은 梓宮書上字補劃을 하여 20원을 받았다. 한편, 繪計系 소속의 미술품제작소원에게도 100원이 지급된 것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왕실의례용 공예품이 主監을 대신하여 李王職美術品製作所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주감에서 필요로 하였던 회원과 공장의 수는 줄었을 것이다.

순종 어장 때 표구와 장황에는 일본인이 차출되었음이 주목된다. 회계계 소속의 表具師 藤川小三郎과 粧潢工 堺常吉이 각각 40원과 35원을 지급받았다. 대한제국기까지 사용되지 않던 表具師라는 일본식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표구와 장황을 구별하였는데 표구는 그림을 장황하는 것이고 장황은 서책을 장첩하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²⁰

한편 『순헌귀비원소의궤』, 『고종태황제산릉주감의궤』, 『순종효황제산릉주감의궤』의 마지막 항목 「儀軌編纂」에는 이례적으로 의궤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빈전 혼전·어장·산릉의 三主監儀軌는 각각 따로 편찬되었지만 그 업무는 한꺼번에 진행되고 산릉의궤에 대표적으로 그 책임자의 명단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순헌귀비원소의궤』의 편찬위원장은 李王職長官 韓昌洙, 편찬부위원장은 掌侍司長 李恒九였으며 그 아래 편찬위원 7명(典祀 3, 元典祀 4)과 편찬원 10명(囑託 1, 屬 3, 典祀補 2, 參奉 3, 雇 1), 書寫 5명, 畫寫 3명, 給仕와 仕丁 각 1명이 실무를 담당하였다.²¹ 세 명의 화사는 徐元熙(1862-?), 李憲泳(1870-?), 姜弼周이다. 또 1928년 『순종부묘주감의궤』 「의궤편찬」에는 書寫에 백만갑과 朴容淑이, 畫寫에 徐元熙의 이름이 올라 있다.²² ‘書寫’라 함은 화원이 담당했던 의궤의 인찰을 하고 도설을 그리는 일을 의미할 것이다. 서원희와 이덕영도 전수묵의 경우처럼 대한제국 마지막까지 宮內府에 소속되어 圖書主事를 역임한 사람들이다. 1910년 국가체제가 바뀐 뒤 이들의 소속과 직함을 알 수 없지만 이왕직은 국가전례의 경험에 풍부한 자들을 적극 영입하였음을 말해준다.

¹⁹ 박정혜, 「대한제국기 書院 계도의 변모와 書員의 운용」, 『근대미술연구 2004』(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88-116 참조

²⁰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卷下 「賞典」 참조

²¹ 『純欽貴妃園所儀軌』 「의궤편찬」 참조 『순종효황제산릉주감의궤』 「의궤편찬」에 나타난 인적구성은 서사가 8명으로 늘어남을 제외하면 『순헌귀비원소의궤』와 완전히 동일하다. 『고종태황제산릉주감의궤』의 「의궤편찬」에 나타난 편찬 책임자의 구성은 순헌귀비나 순종 때와는 다르며 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²² 『純宗孝皇帝御葬主監儀軌』卷下 「儀軌編纂」 참조

대한제국기에 通信司 電話課主事(1900년), 營繕司 委員(1907년) 등을 지낸 渭士 강필주는 1911년 3월 조직된 書畫美術會의 교수진으로 참여하였으며 1918년 결성된 書畫協會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이었다. 순헌귀비의 예장이 완료되고 의궤 편찬이 시작될 1911년 8월에는 서화미술회의 교수진으로 일하고 있었다. 강필주는 그 이전에 도감의 繪事에 참여한 경력은 없다. 그러나 서화미술회가 왕실에서 후원받는 단체였음을 상기할 때 왕실의 의궤 제작에 필요한 인력 공급에 서화미술회가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리라는 추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어쨌든 典式이 바뀌지 않은 한 회원의 임무는 대한제국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세 주감에서 필요하였던 회원의 역할도 대한제국기 때와 같았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주감에서 일한 회원과 공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름이 드러난 몇몇 회원은 대한제국기 때 도감에서 일한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용 物種과 屏風

일제강점기 의궤에 회원의 소용 물종이 그 이전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간혹 소용된 채색의 명칭이 열거되는데 조선시대 혹은 대한제국기의 것과 다름이 없다. 1911년부터 1926년 사이의 의궤에 나타난 채색명을 종합해보면 二靑, 三靑, 三綠, 靑花, 荷葉, 石硤, 同黃, 黃丹, 石紫黃, 唐朱紅, 倭朱紅, 片臙脂, 石間硃, 丁粉, 眞粉 등이다.²³ 이는 앞으로 살펴 볼 1928년 『순종효황제부묘주감의궤』부록에 기록된 어진 모사 시의 소용 채색명이 완전히 일본식으로 달라지는 것과 상충되는 사실이다. 의궤에는 앞선 예를 충실히 따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전통적인 物名을 답습해 쓴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산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의궤에서 미술사와 관련하여 희소성이 있는 내용 중의 한 가지가 병풍에 대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의궤에서도 빈전혼전주감의궤의 「舉行諸具」와 「魂宮排設」에서 빈전 및 혼전에 배설되었던 병풍과 起書 시 소용되었던 물종을 알 수 있다.²⁴ 혼전과 빈전에서 사용된 병풍은 擧復義할 때 모란병 1좌, 襲奠할 때 빈전의 靈座에 오봉산병 1좌, 靈寢牀 위의 후면과 좌우에 병풍 3좌(그중 하나는 오봉산병), 혼전 唐家의 3면에 五嶺障子, 혼전의 북벽 3間に 扈防까지 닿는 길이의 모란병 3좌, 御齋室(혹은 睿齋室)에 素屏風 2좌, 土藤方箱權安 시 모란

²³ 『純欽貴妃禮葬義軌』卷上「輦輿」神帛腰擧一坐修補所入, 腰擧四部每部修補所入, 彩擧三部每部修補所入 참조.

²⁴ 「거행 계구」에는 각의식절차의 일시와 그에 따른 소용 물품, 주관처, 거행 집사 등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병 1좌 등이다.

오봉병은 빈전의 영좌·영침이나 혼전의 당가에 설치되었는데 고종과 순종은 물론 순현귀비의 당가에도 사용된 것을 보면 반드시 왕권을 상징하는, 왕(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을 포함한 왕실 어른의 빈전혼전에는 오봉병의 설치가 관례였던 것 같다. 또한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거복의가 거행되는 장소에도 모란병이 사용되었으며 혼전에 설치되는 모란병은 천정 가까이 창방에 이르는 크기임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沐浴, 龔, 小殮, 大斂과 奉下梓室, 齋室權安, 改筵筵書寫할 때에 어떤 종류의 병풍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병풍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成殯할 때 障子 12隻이 배설되었으며 廬와 빈전에도 素屏風 1좌와 병풍 2좌가 각각 설치되었다. 이때의 병풍은 그림의 상징성에 특별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에서 가리개나 공간의 구획 같은 기능을 하였을 것이다.

어장주감의례의 「各樣儀物」에서도 그 소용된 병풍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다. 모란병은 4척짜리가 7좌 소용되었다.²⁵ 路祭所나 晝停所의 寢殿의 御間 및 좌·우 면에 배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병은 8척짜리가 2좌 필요하였는데 산릉의 隧首閣에 사용되었다. 부묘례에도 모란병 2좌가 소용되었는데, 종묘 南神門 밖의 악차에 배설하기 위한 것이다.²⁶

이와 같이 보수적인 유교전례는 일제강점기에도 의례에 사용되는 병풍의 용례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 시기의 의례에는 이전의 의례와는 달리 소용된 병풍들이 新造된 것인지 前非者를 修補해서 入用한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IV. 眞殿 및 御眞摹寫 관련 기록

1. 新禧源殿 건립과 高宗御眞 移奉

1921년 선원전 12실이 창덕궁 후원의 서북쪽 옛 북일영 터 뒤편에 새로 건립되었다. 이는 같은 해 3월 31일에 거행될 고종황제의 부묘례와 미래에 언젠가는 시행될 순종 부묘례를

²⁵ 국장용 모란병에 대해서는 이종숙, 「조선 후기 국장용 모란병의 사용과 그 의미」, 『고궁문화』 창간호(2007), pp. 58-91.

²⁶ 『高宗大皇帝神廟主監儀軌』卷下 「龕室以下諸具」 南神門外輦次; 『純宗孝皇帝神廟主監儀軌』卷上 「下教及上啓」 5月8日 참조

의식하고 계획된 일인 듯하다. 고종의 부모에 앞서 3월 20일 창덕궁 舊선원전 10실의 어진들이 新선원전에 移奉되고, 경운궁의 중화전에 봉안되었던 고종태황제의 어진도 新선원전의 제11실에 봉안되었는데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高宗太皇帝·明成太皇后 祔廟主監儀軌』의 뒷부분에 附錄된 「中和殿御眞奉安 璿源殿日記」이다.²⁷ 이 일기는 時日, 御眞移奉班次, 醮薦禮 應行節目, 어진봉안 의주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때 신선원전으로 옮겨진 고종 어진은 임신년(1872)에 도사된 翼善冠本과 幅巾本 각 1본, 임인년(1902) 5월에 도사된 冕服本 1본, 익선관본 2본, 軍服本 2본, 같은 해 10월에 도사된 면복본과 익선관본 각 1본으로 총 9본이었다. 이 중에서 임인년 10월에 도사된 면복본이 제11실에 展奉되었다. 이에 祭床, 香床, 樽所床, 扇, 蓋 등이 제11실에 새로 구비되었으며 궁 안에서 쓰던 銀器皿과 穆淸殿에 배설되었던 香爐 및 香盒 등도 이곳으로 옮겨졌다.

대개 어진 관련 의례에는 완성된 어진을 봉안장소로 옮겨가는 행렬반차도가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中和殿御眞奉安 璿源殿日記」에는 구선원전 어진들을 이봉하는 ‘璿源殿移奉班次’와 중화전의 고종 어진을 이봉하는 ‘高宗太皇帝御眞移奉班次’가 순서대로 쓰여 있을 뿐이다. 모두 황제 위외에 부합하는 細義丈이 동원되었으며 후자의 경우 禮式課長, 李岡公殿下, 御親戚, 貴族, 當職高等官 등이 배종하였다. 1902년의 『御眞圖寫都監監儀軌』班次圖와 비교해보면 직명이 달라졌을 뿐 전체적으로 행렬의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²⁸

2. 純宗御眞 摹寫와 新璿源殿 奉安

1928년 7월 6일에 거행된 순종과 순명황후의 부모례를 기록한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祔廟主監儀軌』의 끝에는 「御眞摹寫及奉安日記」가 부록되어 있다. 순종의 부모에 앞서 어진을 이모하여 선원전에 봉안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총 28장의 분량은 下教, 時日, 應行節目, 祭官과 差備官 명단, 儀註, 御眞奉安班次, 摹寫時物種, 粧潢時物種, 襍屬과 橫子措備物種, 御眞洗草節次, 洗草時物種, 賞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상 부록의 형식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어진모사의례’의 체제와 성격을 갖추었다. 1928년의 순종 어진 이모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김은호의 자전적 기록인 『書畫百年』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을 뿐인데 이 일기를 통해 좀더 자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²⁷ 『純宗實錄』附錄 卷12 1914년 3월 22日條에는 22일 신선원전에 어진을 봉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

²⁸ 『御眞圖寫都監監儀軌』(1902년) 班次圖 참조

원래 祈廟에 앞서 어진을 궁 안의 진전에 봉안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지만 순종 어진의 선원전 봉안은 순종과 순명후의 부묘례 두 달 뒤인 9월 8일에 이루어졌다. 이모의 하교가 내려질 당시 남아 있던 순종 어진은 1902년 29세 때의 황태자 시절에 도사된 것이라 선원전 봉안용으로 적당치 않았다. 이미 순종이 승하하였으므로 마땅히 追寫하여야 했으나 대신 1909년(36세)에 찍은 사진(己酉寫眞本)을 범본으로 삼아 모사가 이루어졌다.²⁹ 공식적인 진전 봉안용 어진 모사를 위해 사진이 그림의 역할을 대신한 점은 당시 통용된 ‘御寫眞’의 근대적 의미와 기능을 말해준다.³⁰ 아마도 사진 속 순종은 大元帥軍服을 착용하였던 듯 衣冠의 의례용 어진에 맞는 翼善冠과 黃袍로 바꾸어 그리도록 결정되었다.³¹ 모사 장소는 인정전 東行閣이었으며 모든 업무는 掌侍司에서 감독하였다.

主管書師는 金殷鎬, 동참화사는 없으며 隨從書員은 安明睿과 白潤文(1906~1979)으로 결정되었고 장황은 일본인 表具師 藤川小三郎이 담당하였다. 「賞典」에 의하면 김은호는 공로로 돈 1,000원과 辨當料(도시락 요금; 식비) 30원을 받았으며 수종회원 안명준과 백윤문은 250원과 식비 30원을, 표구사는 30원을 받았다.³² 의례의 본문에서는 일관되게 書師와 書員의 명칭을 구분한 점이 눈에 띈다.

1928년 7월 9일 柳炭 草圖를 그리기 시작하여 8월 20일 上緋가 완료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모사는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되었다(〈표2〉 참조). 標題書寫官은 尹用求(1853-1939)였으며 御眞標題書式은 “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御眞 隆熙三年己酉春秋三十六歲寫眞本 戊辰移摹”였다. 의례상으로는 김은호가 순종의 어진을 몇 본 이모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1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9월 8일 최종적으로 선원전 제12실에 봉안된 것은 총 7본이었는데 나머지 6본은 1902년 5월 고종 어진도사 때 함께 도사되었던 면복본, 익선관본 2본, 군복대본 및 소본, 복건본이었기 때문이다.³³ 이로써 신선원전 12실에 모서진 총 46본의 어진을 각 실별로 정리해보면 〈표3〉과 같다.

²⁹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祈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 昭和 3년 6월 26일조.

³⁰ 어진과 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청아, 「한국 근대 초상화 연구」 『미술사연구』 17 (2003), pp. 201-231; 최인진, 「고종 황제의 어사진」, 『근대미술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44-73; 권행가, 「高宗 皇帝의 肖像」,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12); 동저, 「사진 속에 재현된 대한제국 황제의 표상」,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6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pp. 7-41 참조.

³¹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祈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 昭和 3년 6월 28일조.

³²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祈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 賞典 참조.

³³ 1902년의 고종 및 순종의 어진도사에 대해서는 李成美, 「朝鮮時代 御眞關係 都監儀軌」,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62-68.

표 2 1928년 純宗御眞 移摹 일정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耐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를 바탕으로 작성

일시	작업 내용	일시	작업 내용
6월 26일	순중 어진 모사를 하고	9월 6일	장황 완료, 봉심
28일	畫師 및 모사 장소 결정	7일 오후1시	모사 처소에서 완성본 봉심
7월 9일 오전10시	柳炭 草圖 起畫	오후2시	완성본을 御馬車로 奉謨堂에 봉안
12일	油紙本 草圖 기화 시작	8일 오전8시	선원전 各室에 告由茶禮 행함
23일	유자본 완성, 이왕직장관 이하奉審	오후1시	순중 어진 7본을 神輦로 옮겨 선원전 제12실 봉안
24일 오전10시	上緞 시작	오후2시	작헌례, 고종 어진 甲寅圖寫本 洗絹, 순중 어진 草圖의 柳炭本·油紙本 洗草
8월 20일	상초 완료, 봉심	오후5시	선원전 제11실·12실 後階 위편에 埋女
21일 오후2시	標題書寫 완료 및 봉심, 장황 지역	9월 11일	왕대비가 典祀에게 賜饌 주관화사·수증화원에게 賜饌, 緞屬 하사

표 3 1935년 3월 당시 新濤源殿 12실에 봉안되었던 어진 일람표

※『濤源殿御眞修改謄錄』 「御眞御眞修補工程明細書」를 바탕으로 작성

실	왕	봉안된 어진의 복식과 건수(本)	합계(本)
제1실	태조	翼善冠 3	3
제2실	세조	翼善冠 1	1
제3실	원종	紗帽 1	1
제4실	숙종	翼善冠 2	2
제5실	영조	紗帽 1, 冕服 1, 翼善冠 2, 笠子 1, 冠 1	6
제6실	정조	遠遊冠 2, 軍服 1, 軍服 小本 1	4
제7실	순조	翼善冠 2, 遠遊冠 2	4
제8실	익종	冕服 2, 幅巾 1	3
제9실	헌종	翼善冠 2	2
제10실	철종	翼善冠 小本 1, 冕服 1, 軍服 1, 遠遊冠 1	4
제11실	고종	翼善冠 4, 幅巾 1, 冕服 2, 軍服 2	9
제12실	순종	紅龍袍 2, 軍服 1, 冕服 1, 軍服 小本 1, 幅巾 1, 黃龍袍 1	7
			총 46본

순종 어진의 草圖를 세초하는 단계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진 것은 기존의 고종 어진 중에 미흡하다고 판단된 갑인도사본(1914년)을 함께 洗絹한 것이다. 순종 어진의 장황이 시작된 8월 21일자의 하교에 의한 일이었다. 갑인도사본이 어떤 어진인지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다만 당시 덕수궁과 창덕궁을 출입하며 어진을 그렸던 일본인 화가의 작품이었거나,³⁴ 김은호가 『書畫百年』에서 밝힌대로 1914년 무렵 그가 도사했던 袞服像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³⁵

어진세초와 세견은 선원전 東夾室에서 李王職長官, 禮式課長, 主殿課長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행해졌다. 먼저 고종 갑인도사본의 上下軸, 多繪, 回粧, 邊兒, 後背를 순서대로 제거하고 正本을 洗絹하였다. 이를 磁器에 넣어 봉한 뒤 黃油紙로 싸고 黃漆한 櫃子에 넣어 자물쇠를 채우고 다시 황색 명주 보자기로 싸다. 순종 어진의 유탄초본과 유지초본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초하여 結褻한 뒤 고종 어진과 함께 埋安하였다.³⁶ 이 전체 과정을 洗條員 韓應華와 禮式課 雇 千興泰가 거행하였는데 세척원 한응엽은 이 공로로 20원을 하사받았다.

어진 관련 의궤에는 모사와 장황에 소용되었던 물종과 단가가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御眞摹寫及奉安日記』에도 ‘摹寫時物種’과 ‘粧褻時物種’이 있어서 순종 어진 제작에 사용된 물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物名이 거의 일본어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표 4〉 참조).³⁷ 특히 채색 이름은 원재료, 색감과 제법에 따라 매우 세분화된 양상을 나타내는데 정확하게 색감과 형태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큰 변화 없이 12-13종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었던 채색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³⁸

紺靑과 群靑, 綠靑은 원석에서 채취되는 대표적인 천연안료로서 巖紺靑, 巖群靑, 巖綠靑으로도 불린다.³⁹ 이들은 입자의 굵기 정도, 열을 가하는 시간과 온도에 따라 농담에 차이

34 고종·순종 연간의 일본인들에 의한 어진 제작에 대해서는 姜致奇, 「近代轉換期 韓國畫壇의 日本畫 유입과 수용」, 홍익대학교대 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2), pp. 68-84 참조 갑인년(1914)에는 尙謙儀(무카이 카마노리)가 어진을 그린 바 있다(『純宗實錄』附錄 卷5 7年 7月 25日條).

35 이 논문의 註53 및 57 참조. 洗絹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埋安했다면 일본인에 의한 비공식적 어진보다는 한국의 화가가 그린 진전에 봉안의 어진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36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祈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 御眞洗草節次 및 洗草時物種 참조. 자기는 직경 7寸(약 21cm) 크기였으며, 껍자는 가로와 세로가 1尺(약 30cm) 크기의 정방형 상자였다.

37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 祈廟主監儀軌』 『御眞摹寫及奉安日記』 摹寫時物種 및 粧褻時物種 참조.

38 이성미, 앞의 논문, p. 15, 25, 52, 64의 채색명과 비교.

39 일본 채색 명칭과 색감에 대해서는 손경숙, 『채색 화기법』(도서출판 계원, 2002); 長崎盛輝, 『日本の傳統色』(京都: ショウゴ社出版株式會社, 1996); 東京藝術大學大學院 文化財保存學日本畫研究室 編, 『日本畫用語辭典』(東京: 東京美術, 2007) 등을 참고하였다.

표4 1928년 순종 어진 이모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附廟主監備九』「御眞摹寫及奉安日記」를 바탕으로 작성

종류	명칭	
채색 (색감에 따른 분류)	청색계	巖紺靑放光印 2냥, 巖紺靑美光印 2냥, 巖群靑二號放光印 2냥, 巖群靑二號美光印 2냥, 巖淡群靑放光印 2냥, 巖淡群靑二號放光印 2냥, 巖白群靑放光印 2냥, 巖白群靑美光印 2냥, 巖堯群靑極細末 2냥
	녹색계	巖群綠靑極世末 2냥, 水色巖白群靑極世末 2냥, 巖綠靑靑口五番 3냥, 巖白綠靑特製 3냥, 巖白綠靑靑口 3냥, 巖白綠靑黃口 3냥, 巖白綠靑白口 3냥, 巖堯綠靑 2냥, 本茶綠白 2냥, 天然黃綠靑淡口 2냥, 天然黃綠靑濃口 2냥
	적색계	天然辰紗 2냥, 緋臙脂岩赤口 2냥, 緋臙脂岩靑口 2냥, 朱鳳印極赤 2냥, 朱最上 2냥, 朱特稱印 2냥, 朱放光印赤口 2냥, 朱特製古代朱 2냥, 朱極濃口古色 2냥, 臙臙脂古渡別上大 1枚, 臙臙脂別上品 1대
	황색계	黃土 5냥, 本茶白綠 2냥
	백색계	胡粉特號 2냥
	금은색계	金泥砂子菊印地弓用 20封, 純金消 20봉, 靑金消 20봉, 水色金消 20봉, 純銀消 20봉, 純金箔 10대, 靑金箔 10대 ⁴⁰⁾
채색 (계형에 따른 분류)	분말형태	天然黃金末 2냥, 天然黃綠末 2냥, 天然華色末 2냥, 天然紫色末 2냥, 天然藤色末 2냥
	막대모양	棒繪具別上藍棒 1본, 棒繪具洋紅棒 1본, 棒繪具岱赤棒赤口 1본, 棒繪具岱赤棒黃口 1본, 棒繪具雌黃棒 1본
비단 및 종이	繪絹 12尺, 又 12척, 壯紬紙 3대, 壯紙 30대, 美濃紙 10대, 洋紙 10대	
붓, 먹	柳炭 1匣, 主臣墨 1挺, 繪畫筆 各種 63本, 柳炭筆 1개, 筆簾 1개, 大硯 1개, 繪刷毛 3丁	
용기	乳鉢棒共 1개, 藤黃棒 12돈, 摺鉢棒共 1개, 水繪具鐵器 1개, 砂接匙 25개, 三足鐵 1개, 鍋 1개, 火爐 1개, 茶罐 1개, 酒精燈臺 1개	
도구 및 기타재료	齊羅眞 10돈, 白礬 10돈, 膠水 5瓶, 酒精 1瓶, 淨機 1개, 來往板 2대, 紅松板 2대, 押鑽 2갑, 曲尺 1개, 靑毛氈 1대, 兩脚枝 1개, 平床 1좌, 覆黃雲紋緞袷被內拱藍雲紋緞 1건, 天然黃金紗 2냥, 玉洋木袷線 1대	
畫師의 복식	小禮服 3組, 紗帽 3개, 座敷團 3개	

가 난다. 입자의 굵기는 1번에서 15번까지 번호가 클수록 고운 상태를 말하며 열을 가하지 않은 가장 미세한 입자의 상태를 白이라고 한다. 입자가 고울수록, 구운 시간이 짧을수록 밝고 옅은 색이 되며 굵는 시간이 길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지므로 白群靑, 白綠靑이 가장 밝고 흐린 색감을 의미한다. 색명 뒤에 口를 붙여 靑口(푸른기), 黃口(노른기), 赤口(붉은기), 淡口(흐린기), 濃口(진한기) 등 색조와 농담을 표시하기도 한다.

청색과 녹색계열의 채색이 천연안료라면 물에 용해되는 성질의 수간염료로는 臙脂, 洋

⁴⁰ 청금박은 푸른기를 띄는 금색으로 금75%에 은25%를 섞은 것을 말한다.

표 5 1928년 순종 어진 이모 시 장황에 사용된 재료와 치수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廟主監儀軌』「御眞摹寫及奉安日記」를 바탕으로 작성

재료	세로 크기	가로 크기
正絹	3尺5寸5分	1척5촌3분
後背 熟絹	5척1촌3분	1척8촌7분
上下邊兒 白五葫蘆緞	1촌7분	1척8촌7분
上縑 藍別紋庫緞	5촌5분	1척8촌7분
下縑 藍別紋庫緞	5촌	1척8촌7분
上軸甘只 藍別紋英絹	6분	1척8촌7분
下軸甘只 藍別紋英絹	1촌3분	1척8촌7분
左右邊兒 白別紋英絹	3척5촌5분	1촌7분
白玉上下軸 1쌍, 上下 橫木, 銀環 2개, 後背 美農紙, 左右 流蘇 1쌍 具方兀 左右 落櫻 1쌍, 具金箋紙		

紅, 藍, 黃土 등을 들 수 있다. 채색명에는 제품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금은색 계열에서 보이는 消는 주로 關東地方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泥와 같은 뜻이며 箔을 분말상태로 만든 것이다. 棒繪具는 미립자의 천연안료를 아교와 섞어 막대모양으로 굳혀 만든 것이다. 또 末과 米는 가루 형태를 말한다. 위의 채색명에서 藍, 洋紅, 岱赤(岱赭), 雌黃 등은 주로 봉회구 형태로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기후현(岐阜縣) 미노(美濃) 지방의 특산물인 美農紙, 洋紙의 사용도 주목된다.

이 『粧幀時物種』에서는 장황에 든 재료와 함께 그 치수를 확인할 수 있다(〈표 5〉참조).⁴¹ 치수의 단위는 布帛尺(1尺=48.5cm)에 의한 것이므로 正絹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어진의 화면 크기는 대략 길이 172.2cm, 폭 74.2cm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황 후의 전체 크기는 길이 5尺1寸3分(약 248.8cm), 폭 1尺8寸7分(약 90.7cm)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902년 『어진도사도감의궤』의 고종 면복본 장황물종에 나타난 正絹, 縑, 邊兒, 軸 등의 치수와 일치한다.⁴² 각 부분에 사용된 비단의 종류도 上下邊兒가 白五葫蘆緞로 바뀌고 후배에 미농지가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1902년과 모두 일치한다. 진전 봉안용의 어진으로서 화면 규격과 장황 상태는 前例를 충실히 따랐음을 알 수 있다.

⁴¹ 『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廟主監儀軌』「御眞摹寫及奉安日記」粧幀時物種 참조.

⁴² 이성미, 앞의 논문, pp. 64-65 참조.

3. 세조 및 원종 어진 모사와 『璿源殿猷眞摹寫譜錄』

『璿源殿猷眞摹寫譜錄』은 1935년 4월부터 1936년 1월까지 선원전 제2실의 세조어진과 제3실의 원종 어진을 모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제2실의 翼善冠本 세조어진과 제3실의 紗帽本 원종 어진은 유일본으로서 副本이 없다는 점이 오랜 숙제였는데 예산이 통과되어 비로소 모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⁴³ 이 등록은 座目, 작업 일정을 적은 日記, 어진의 移安 및 奉安義注를 적은 儀式秩, 祭享秩, 豫算秩, 請求秩, 賞典에 해당하는 給與秩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등록이 중요한 점은 「좌목」을 통해 화가 이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畫師 金殷鎬, 助手 張鳳雲(張雲鳳의 오기), 表具師 金昌植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모두 主殿課 소속으로 명시되어 있다.⁴⁴ 총책임자도 禮式課長 겸 主殿課長인 李謙聖이며, 자작 李完用(1858-1926)이 주전과 촉탁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어진 모사의 진행은 주전과에서 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1928년과 다른 점은 주관화사나 수종화원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화사와 조수라는 직함을 주었다는 것이다. 모사 처소는 순종황제의 비 순명황후의 신주를 모셨던 元懿孝殿으로 결정되었다.

1935년 4월 23일 모사의 결정에서 1936년 1월 23일 표제를 붙이기까지 만 9개월이 소요되었다(〈표 6〉 참조). 제2실의 세조어진이 먼저 모사되고 제3실의 원종 어진이 나중에 모사되었으며 표구하는 데만 10주가량이 소요되었다. 5월 23일 세조어진을 모사 처소의 당가 안으로 移安한 뒤 草圖寫, 견본에 墨摹(上綃) 및 着色하고 7월 6일 선원전에 환안하기까지 약 한 달 반가량이 소요되었다. 원종 어진은 7월 7일 초도사가 시작되어 8월 13일 대봉심이 거행되었다. 상초는 얼굴부터 다리부분까지 위에서 순서대로 행해졌으며 [上部→龍體→龍體下部→椅子 및 鋪席], 설채는 얼굴→龍袍→龍床→肩章→胸背→龍袍紋→領 순으로 행해졌다. 그로부터 한 달 반 후인 11월 1일 표구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1월 16일 완료되었다. 표구는 세 차례의 留彩, 初精, 中精, 正精하는 과정을 거쳤다. 玉軸半月과 裝飾品은 미술품제작소에서 만들었고 落纓과 流蘇는 1934년에 각실의 영정을 수개할 때 남아서 보관해 놓은 것을 사용하였다.⁴⁶

⁴³ 『璿源殿猷眞摹寫譜錄』 「日記」 昭和 10年 4月 23日 참조

⁴⁴ 등록에는 ‘장봉운’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張雲鳳’의 誤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⁴⁵ 『璿源殿猷眞摹寫譜錄』 「座目」 참조

⁴⁶ 『璿源殿猷眞摹寫譜錄』 「日記」 昭和 11年 1月 日 참조

표 6 1935년~1936년 新濤源殿 제2실 세조어진 및 제3실 원종 어진 모사 일정표

*『濤源殿景興御筆寫眞繪錄』 「日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일시	작업 내용
1935년 4월 23일	영정 모사 결정, 모사 처소 정해짐
4월 26일~5월 4일	營繕係에서 元懿孝殿에 임시 당가(假唐家) 임배
5월 8일 오전 10시	告由茶禮 거행, 제3실 영정 걸어서 橫子에 봉안
23일 오전 9시	제3실 영정을 모사 처소의 당가 안으로 이안
27일	제3실 영정 龍體에서 足部까지 草圖寫, 이날부터 화사와 조수 점심식대 지급
30일	모사용 견본 阿膠 칠하여 曝曬
6월 4일	草圖寫 완료, 견본 墨摹 시작
5일	견본 上部 목모
6일	견본 龍體 목모
7일	견본 용체 下部 목모
8일	초도사 목모 종료, 원본 영정을 임시 당가 안에 展奉
11일	체색 시작
12일	龍袍 설채
14일	제3실에 櫻桃薦新 거행
17일	龍袍 설채 종료
18일~20일	龍床과 鋪席 체색
21일~22일	肩章과 胸背 도사
24일	龍袍紋과 領 모사
7월 1일	음력 6월 1일이므로 모사 처소에 분향거행, 체색 계속시행
3일	제3실 영정 모사 완료, 임시 당가 안에 봉안
6일	제3실 영정 橫子에 捲奉, 오후 3시 선원전 환안, 제3실 영정 께지에서 꺼내 모사 처소의 假唐家 안에 이안, 관계직원 모사 처소에서 모사본 침실에 참여
7일	제3실 영정을 꺼내 어좌 위에 전봉, 초도사 시작
8일	초도사 완료
9일	견본 墨摹 시작
10일	견본 上部 목모
11일	견본 龍體 목모
12일	견본 용체 下部 목모

13일	椅子와 繡席 목모
16일	견본 목모 종료, 원본 영정 橫子에 넣어 오후1시 선원전 정전 안에 전봉
17일~18일	彩色 착수
8월 3일 오후9시	제3실 영정 모사처소에 이안, 10시30분 이모본 미완처 加工
13일 오전7시	음력7월 15일이므로 분향, 이어 대봉심 거행
16일	제3실 원본 영정 선원전 정전에 환안, 10시 현중 誕辰茶禮 겸 제2실 제3실 영정 모사종료 후 원본 영정 還安告由茶禮
10월 31일	표구도구를 덕수궁에서 빌려옴
11월 1일	표구사 金昌植과 계약 체결 ⁴⁷
7일	제2·3실 새로 모사한 영정의 첫 번째 留彩 거행
8일	두 번째 유체 공사
10일	세 번째 유체
19일	제2·3실 새로 모사한 영정 初楮 거행하여 假張機에 봉안
26일	中楮
29일	영정 表具物品 楮接
12월 1일	제2실, 제3실 새로운 모사영정 耳替 공사 거행
4일	正楮하여 假張機에 봉안
5일	제3실 새로 모사한 영정 정비, 假張機에 봉안
11일	제2실, 제3실 새로 모사한 영정 橫子 新造하여 들임
1936년 1월 9일	제2·3실 新影幀을 위한 玉軸半月과 장식품을 美術品製作所로부터 신조하여 들임
1월 10일	제2실의 신영정 축을 붙이는 작업
13일	제3실의 신영정 축을 붙이는 작업, 제2·3실 신영정의 落響과 流蘇는 전년도에 각실의 영정을 修改했을 때 남은 보관품을 入排
14일	제2실 신영정 표구 완료 橫子 안에 보관
15일 오전8시	제2·3실 신영정을 선원전 정전 안에 봉안, 오전9시 告由茶禮
16일	표구사 표구 완료하여 120원 지급 받음
17일	관계직원 酒饌料 하사
23일 오전9시	음력2월 1일이므로 분향 후 영정 표계 붙임 ⁴⁸

⁴⁷ 계약 조건은 “兩室 영정의 표구는 50일 내에 끝내며, 보수 120원은 표구 완료 후 지불하고, 표구 도구 및 물품은 관청에서 공급하되, 조수 1인은 선원전 근무사원인 姜鳳書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이다.

모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제례가 있었다. 선원전의 어진을 모사 장소로 이안하기 전에 告由茶禮 음력 5월 5일 선원전에서 櫻桃薦新禮 음력 매월 초하루 모사 처소에서 焚香, 원본 영정을 다시 선원전의 제자리로 옮긴 후 還安告由茶禮 새로 모사한 영정을 선원전에 봉안한 후 告由茶禮를 지냈다. 또 현종과 철종의 誕辰茶禮를 거행하기 위해 제3실의 원본을 선원전의 원래 위치로 환안하였다가 다시 모사 장소로 이안하느라고 7월 18일부터 2주 남짓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모사 과정에서 김은호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제3실 원종 어진의 용체를 上 緞할 때 舊本의 衣櫛垂形과 倚子の 측면이 화법에 맞지 않다고 하며 새로 모사하는 본에는 조금 변경하여 그럴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초상들은 조선 초기에 그려진 것으로 1930년대의 화가 눈에는 그 묘사가 불합리하게 보였을 것이다. 과장 이하 관계 직원들은 구본을 상세하게 봉심하고 김은호의 말을 따랐다.⁴⁹ 김은호는 5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그 공로로 사례금 1500원과 상여금 100원을 받았고 조수 장봉운은 수당 200원과 상여금 20원을 받았다.⁵⁰ 어진 1본을 제작하고 1000원을 받은 1928년과 비교하면 두 본을 모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사진을 확대·모사하고 의대를 새로 그렸던 1928년의 경우와 기존의 어진을 그대로 모사한 1935년의 경우는 작업의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계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이 등록의 물품 명세서에서도 각종 일본채색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1928년의 궤와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색감을 나타내는 방식은 같지만 다른 이름들이 많이 눈에 띈다.⁵¹ 참고로 1935년의 어진 모사에 사용된 용구와 채색의 종류와 수량, 단가를 표로 제시한다(〈표 7〉참조).

4. 마지막 御眞畫師 金殷鎬

도감이 주관한 공식적인 순종의 어진 제작은 1902년 5월이 마지막이었다.⁵² 1910년 이

⁴⁸ 제2실의 표제는 “世祖大王御眞 乙亥移摹”이며, 제3실의 표제는 “元宗大王御眞 乙亥移摹”이다. 표제지는 白絹 인데 紅絹으로 배접하여 緞을 만들었다. 仕員 金能演과 書仕員 姜鳳書가 붙였다. 『璿源殿御眞摹寫謄錄』 「日記」 昭和 11年 2月 23日 참조.

⁴⁹ 『璿源殿御眞摹寫謄錄』 「日記」 昭和 10年 7月 11日 참조.

⁵⁰ 『璿源殿御眞摹寫謄錄』 「給與秩」 참조.

⁵¹ 여기에는 群靑이 郡靑으로 표기되었고 1928년에 보이지 않던 特稀印, 鳳凰印, 菊印 등의 채색과 長流運筆, 則毛大面相筆, 黑色長峰面相筆 등 붓의 종류가 눈에 띈다.

표 7 1935년 세조 및 원종 어진 모사 시 물품청구 전표

*출전: 『睿源殿御眞摹寫稽録』

(단가의 단위는 圓)

品目	數量	單價	品目	數量	單價	品目	數量	單價
放光印郡青	2兩	700	極赤色最上濃赤米	3兩	200	畫敬亭小筆	5本	650
放光印黑口郡青	1兩	700	特稀印	3兩	150	長流運筆	6本	60
放光印淡郡青	3兩	700	鳳凰印	3兩	150	彩色筆	3本	30
放光印白郡青	3兩	700	特黃漂印	1兩	100	則毛大面相筆	10本	25
放光印黑白郡青	1兩	700	特朱色特製古代朱	1兩	150	黑色長峰面相筆	10本	20
綠青勝郡綠青	1兩	500	極赤色最上濃赤肉	1兩	200	セラチン	2兩	
郡青勝郡綠青	2兩	500	古代肉	1兩	150	純金箔	3包	
白郡勝水色岩白郡青	3兩	600	細末濃ル水干黃土	3兩	100	大燒金消	3包	150
放光印黑口淡郡青	1兩	700	純本洋紅	1兩	300	靑金箔	2包	150
靑口岩綠青	2兩	140	赤口別上埴	1兩	10	塗柄畫刷毛	2本	
黃口岩綠青	4兩	140	菊印純金消	20封	150	長鋒面描	30本	
白口白綠青	2兩	120	大燒消	25封	150	彩色筆	8本	
黃口白綠青	2兩	120	靑金消	20封	150	別製和墨	1丁	
靑口白綠青	2兩	120	水色金消	10封	280	流箱	2個	
美口茶白綠	2兩	80	特製純銀消	5封	25	特号胡粉	4兩	
靑口岩葉綠青	2兩	130	和墨	1丁	5000	靑口岩綠青	3兩	
五号本珊瑚末	6兩	80	濃口石黃	3兩	35	極赤色濃赤朱	4兩	
赤口本茶石末	1兩	40	淡口石黃	3兩	35	放光印淡郡青	2兩	
五号天然石砂	1兩	120	片驢脂	2片	50	純金消	20封	
五號天然黃綠青	1兩	120	藤黃棒	1兩	25	特製胡粉	5斤	
特号胡粉	5兩	25	畫敬亭大筆	5本	1600	放光印岩郡青	5兩	

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화가들이 御前御筆會나 午餐宴에서 비공식적으로 어진을 도사하는 일이 잦았다. 자연히 일본인 관료들은 화가의 추천과 제작 의뢰 등 어진 제작에 깊이 간여하였다. 이 어진들은 전통적인 형식과 기법으로 제작되는 진전 봉안용과는 달리 개인적

52 『御眞圖寫都監儀軌(1902년)』(영인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2); 이성미, 앞의 논문, pp. 61-68.



도4 《純宗肖像》, 油紙草本, 62×46cm, 고려대학교 박물관

으로 감상하고 즐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 지거나 일본 황실의 선전용으로 그려졌다.

고종은 일본인들이 어진 제작에 간섭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⁵³ 마땅히 이를 대신할 만한 한국인 화가도 없었다. 1912년 서화미술회 학생 신분이던 김은호가 우연한 기회에 고종의 御寫眞을 시험 삼아 모사한 것을 계기로 왕실에서는 그의 초상화가로서의 재능을 발견하였고, 마침내 진전 봉안용의 어진은 의례용 어진 제작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화가에게 맡겨진 것이다.

1915년 서화미술회를 졸업한 김은호는 순종의 어진을 정식으로 도사하기 시작하였으나 순종비의 조모인 貞敬夫人 洪氏가 사망하여⁵⁴ 일시 중단되었다가 이듬해(1916

년) 재개되어 10월에 완성되었다.⁵⁵ 김은호는 그 대가로 돈 300원을 하사받았다. 김은호의 회고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사진을 참조하였으나 순종은 하루에 한 번씩 모사 처소에 나와서 포즈를 취해주었다고 한다. 세로 7척, 가로 4척 크기의 大元帥軍服 반신상으로 완성된 어진은 대조전에 걸렸다가 이듬해 화재로 소실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의 유지초본이 이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도4).

1901년과 1902년 어용화사였던 조석진과 안중식은 모사 처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초상화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는 김은호에게 그 방법을 전수하고 조언하였다. 김은호는 그 방법을 배워 薑汁布水한 油紙에 묵선으로 草를 잡은 뒤 뒷면에서 背彩하고 앞면에서는 약간의 施彩만으로 굴곡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유지초본을 만들었다. 쟁들에 맨

⁵³ 김은호, 앞의 책, pp. 52-53.

⁵⁴ 『純宗實錄』附錄 卷6 8年 7月 19日條 참조.

⁵⁵ 『純宗實錄』附錄 卷7 9年 10月 4日條 참조. 김은호는 이 시기를 착각한 듯 『書畫百年』에서는 1912-1913년으로 회고하였다. 나중에 이구열은 1916년으로 순종 어진의 완성 시기를 정정하였다. 이구열, 『以堂 金殷鎰』, 한국근대미술연구소 편(國際文化社, 1978), pp. 7-8 및 p. 210.



도5 仁政殿 東行閣에서 순종 어진을 모사하는 金殷鎬, 1928년, 寫眞 (출전: 『韓國現代美術代表100人選集』 제11권 金殷鎬篇, 금성출판사, 1976)



도6 金殷鎬, 〈純宗御眞〉, 1928년, 寫眞 (출전: 『韓國現代美術代表100人選集』 제11권 金殷鎬篇, 금성출판사, 1976)

바탕비단(正絹) 아래 유지초본을 놓고 上絹하였으며 유지초본과 정견 모두 얼굴 이외의 부분에는 배채하지 않고 겉면에서만 설채하였다.⁵⁶

김은호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순종 어진을 완성한 후 덕수궁의 御前揮毫會를 통해 고종으로부터 미술적 신뢰감을 얻었으며 마침내 고종 어진을 도사할 기회를 얻었다.⁵⁷ 김은호는 세로 6척, 가로 4척 크기의 宸服像을 4개월 만에 완성하였으며 그 그림은 창덕궁 璿源殿에 봉안되었다가 한국전쟁 때 피난길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⁵⁶ 金殷鎬, 앞의 책, pp. 56-57.

⁵⁷ 金殷鎬, 위의 책, pp. 68-70. 김은호 자신이 『書畫百年』에서 순종 어진을 도사한 연도와 사건의 연대기를 일부 혼동하고 있으므로 고종 어진 도사 연도를 『書畫百年』의 기록 그대로 1913-1914년 무렵으로 보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그러나 1928년 순종 어진도사 후에 함께 세초된 甲寅圖寫本(1914년)이 바로 김은호가 이때 그린 것일 가능성은 충분하다(이 글의 제V장 2. 純宗御眞 摹寫와 新璿源殿 奉安 및 註35 참조).



도7 金般鎬, 《純宗》, 1923년(癸亥), 油紙草本, 59.7×45.5cm, 국립현대미술관



도8 《純宗寫眞》1909년, 岩田寫眞館 촬영, 서울역사박물관

그 후 김은호는 3년간의 동경미술학교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해인 1928년에도 순종 어진을 모사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앞에서 살펴본 「御眞摹寫及奉安日記」이다. 인정전 동행각에서 小禮服과 紗帽를 착용하고 순종 어진을 모사하는 김은호의 모습과 완성된 어진의 사진이 남아 있다(도5, 6). 어진을 모사하고 있는 김은호 뒤에는 당시 범본으로 삼았던 순종의 사진이 모셔져 있다. 이 사진은 岩田寫眞館에서 1910년경 찍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로써 1909년 순종 36세에 찍은 사진임(己酉寫眞本)을 밝힐 수 있다(도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순종 유지초본은 1909년의 이 사진에 기초한 것이 분명한데 김은호는 이미 1923년 癸亥年에 이 사진을 모사한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도7).

1928년 어진 모사 때 참여한 2명의 수종화원은 모두 김은호의 제자였다. 그중에서 안명준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우나 香塘 白潤文(1906~1979)은 後素會의 창립회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백윤문은 19세기와 20세기 초 2대에 걸쳐 8명의 화원을 배출한 林川 白氏 집안 출신으로서 조부의 둘째형이 조선시대 화원인 白福禧(1837~?)였다.⁵⁸ 백윤문은 김은호



도9 世祖 및 元宗御眞을 모사하고 있는 金殷鎬, 1935년 寫眞 (출전: 『韓國現代美術代表100人選集』 제11권 金殷鎬篇, 금성출판사, 1976)

가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초창기인 1924년에 그의 화숙 絡靑軒에 들어온 1세대이다.⁵⁹ 김은호는 1925년 가을 일본 東京으로 건너가 1928년 봄에 귀국하였기 때문에 백윤문이 김은호에게 사사할 수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백윤문은 1927년 제6회 조선미술전 동양화부에 입선하는 등 김은호의 제자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 일본에서 귀국하자 어진 모사를 맡은 김은호는 이러한 백윤문을 대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윤문은 1936년 김은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後素會의 창립회원이며 매년 열리는 동인전에 참여하였다. 1942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화가로서 긴 공백기를 가졌는데 1977년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이듬해 개인전을 개최하였던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書畫百年』에 의하면 김은호는 곧이어 태조, 세조, 원종 어진을 모사하였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1935년의 선원전의 세조 및 원종 어진을 모사한 기억에 대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도9). 이때 참여한 조수는 백윤문보다 늦게 김은호의 제자가 된 翠堂 張雲鳳(뒤에 張德으로 개명)이었다. 그도 후소회의 동인으로 1936년 제1회 동인전에 출품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후 어진 제작은 일본인에 의해 사진이 모사되거나 유화 혹은 스케치풍으로 제작되고 있었다. 일본인에 의한 비공식적인 어진은 왕실 제례에 적합하

⁵⁸ 박정혜, 「儀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書員」, 『미술사연구』 제9호(1995), pp. 219 참조 그의 호 香塘은 팔촌 할아버지 백은배의 호 林塘과 백희배의 호 香石에서 한 글자씩 취한 것이라고 한다. 강나영, 「향당 백윤문의 생애와 작품세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p. 14. 이 논문에는 백윤문이 수종화사로 참여한 사실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p. 21).

⁵⁹ 李龜烈, 「以堂과 後素會」, 『韓國現代美術全集』4(正韓出版社, 1980), pp. 91-92 및 pp. 102-103.

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왕실의 표상으로서 설득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호라는 초상화에 뛰어난 화가가 고종의 눈에 띄어 어진 제작을 담당하게 되었고, 조석진과 안중식으로 부터 전통방식이 김은호에게 전수되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V. 맺음말

의궤는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추출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의궤를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행렬반차도는 문반차도로 대체되고 화원의 명단은 단편적으로 발견되었는데, 대한제국기에 궁내부에서 일하던 도화주사들이 경험의 중요시되는 주감의 繪事에 차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얻어진 가장 큰 성과는 1921년 새로 건립된 선원전의 어진 이안, 1928년의 순종 어진 모사, 1935년의 세조 및 원종 어진 모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1928년 김은호가 주관화사였던 어진 모사에 대해서는 제작 일정, 참여 화가, 그에 대한 포상, 모사와 장황에 쓰인 재료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힐 수 있었다. 어진 모사에 사진이 범본으로 사용되었고, 장황에는 전적으로 일본인 표구사가 동원되었지만 형식은 조선왕실의 전통을 따른 점, 채색은 완전히 일본제이지만 배채법을 써서 전통방식으로 그린 사실들은 전통의 계승과 시대적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의궤의 본문은 관습적인 용어와 전형적인 서사방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지만 부록으로 실린 「中和殿御眞奉安璿源殿日記」와 「御眞摹寫及奉安日記」, 『璿源殿御眞摹寫瞻錄』와 『璿源殿御眞紀如瞻錄』같은 瞻錄에서는 자유로운 일본식 용어와 어휘의 사용이 눈에 띄었다. 上緞 대신에 墨摹, 설채나 채색 대신에 着色, 洗緞 대신에 洗絹, 表具師, 洗條員, 押鑲, 內譯書, 假○○, 刷毛, 道具, 美濃紙, 玉洋木, 座敷團 등 시대상을 반영하는 일본식 어휘와 물명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의궤는 조선시대나 대한제국기만큼 풍부하고 연속성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자료의 성격에서는 보수성이 강했다. 역시 의궤의 내용과 편찬은 예제의 보수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일부 왕실의례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의궤 편찬의 명맥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조선건국 이래 왕실전례를 기록하는 전통이 의궤를 통해 얼마나 뿌리 깊게 정착되었었는지를 반증하는 사실이다.

*주제어(key words) __ 일제강점기(Japanese Occupation Period), 의궤(*Uigwe*: Book of Court Rites), 주감(*Jugam*: Supervisory Council of Court Rites during Japanese Occupation Period), 순헌귀비(Sunheongwibi: Queen Consort Sunheon), 고종(Gojong), 순종(Sunjong), 御葬(Eojang: Royal Funeral), 祔廟(*Bumyo*: Memorial Tablet Enshrinement), 어진 모사(Portrait of the King), 선원전(*Seonwonjeon*: Royal Portrait Hall), 김은호(Kim Eun-ho), 화원(Sun), 모란병(Peony Screens), 오봉병(Moon and Five Peaks Screens), 채색(pigment)

▣ 투고일 2008년 5월 27일 | 심사개시일 2008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2008년 7월 2일 ▣

참고문헌

- 『藏書閣所藏義軌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
- 권행가, 「高宗 皇帝의 肖像」,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2.
- 강나영, 「향당 백운문의 생애와 작품세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 14.
- 姜致奇, 「近代 轉換期 韓國 書壇의 日本 畫 유입과 수용」,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2.
- 김은호, 『書畫百年』,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 김이순, 「洪綾과 裕陵의 石物 彫刻 연구」, 『미술사연구』 제21호, 2007. 12, pp. 295-328.
- 박정혜, 「의례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 화원」, 『미술사연구』 제9호, 1995, pp. 203-290.
- _____, 「대한제국기 書院제도의 변모와 書員의 운용」, 『근대미술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 박청아, 「한국 근대 초상화 연구」, 『미술사연구』 17, 2003, pp. 201-231.
- 손경숙, 『채색화 기법』, 도서출판 채원, 2002.
- 신명호, 「일제하 이왕직과 이왕가 족보」, 『한국학대학원논문집』 제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이구열, 『書壇一境』, 동양출판사, 1968.
- _____, 『以堂 金殷鎬』, 한국근대미술연구소 편, 國際文化社, 1978.
- _____, 「以堂과 後素會」, 『韓國現代美術全集』 4, 正韓出版社, 1980.
- 李成美, 「朝鮮時代 御眞關係 都監儀軌」, 『朝鮮時代御眞關係都監儀軌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pp. 1-136.
- 이지선·야마모토 하나코, 「『職員錄』을 통해서 본 李王職의 職制 연구」, 『東洋音樂』 26호,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4, pp. 1-26.
- 張慶姬, 「高宗皇帝의 金谷 洪綾 研究」, 『史叢』 64, 歷史學研究會, 2007. 3, pp. 1-70.
- _____, 「고종황제 금극 홍릉의 석조각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 예경, 2007, pp. 509-536.
- 최인진, 「고종황제의 어사진」, 『근대미술연구 2004』,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 44-73.
- _____, 「사진 속에 재현된 대한제국 황제의 표상」,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6집,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6, pp. 7-41.
- 長崎盛輝, 『日本の傳統色』, 京都: シーグ社出版株式會社, 1996.
- 東京藝術大學大學院 文化財保存學日本畫研究室 編, 『日本畫用語辭典』, 東京: 東京美術, 2007.

이 논문은 장서각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의궤 20종, 총 37건의 의궤에 나타난 미술사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20종의 의궤 중에서 주로 다룬 의궤는 비교적 미술사적인 자료가 많은 1911년 純獻貴妃(1854-1911)의 禮葬, 1919년 고종(1852-1919)의 御葬, 1926년 순종(1874-1926)의 어장, 고종과 순종의 祔廟와 관련된 의궤이다.

의궤에 나타난 미술사 관련 자료는 화원의 역할과 그들의 소용 물증, 그리고 의궤에 사용된 병풍에 집중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의궤에는 글자로만 된 文班次圖가 채색의 행렬만차도를 대신하였으며 화원의 명단도 매우 소략하였다. 그러나 백만옥, 백만갑, 박용숙 등의 書寫와 전수목(1858-?), 서원희(1862-?), 이덕영(1870-?), 강필주 등의 書寫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병풍은 오봉병과 모란병, 素屏 등이 사용되었는데 보수적인 儒教 典禮 덕분에 병풍의 용례는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의궤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1921년 『高宗祔廟主監義軌』 및 1928년 『純宗祔廟主監義軌』에 부록된 고종 어진 이봉과 순종 어진 모사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어진의 제작 일정, 참여 화가, 그에 대한 포상, 모사와 장황에 쓰인 재료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즉 1921년 창덕궁 후원에 신선원전을 건립하고 구선원전의 어진들과 경운궁의 중화전에 봉안되었던 고종의 어진을 移奉하였으며, 1928년에는 순종이 36세 때(1909) 찍은 사진을 범본으로 순종 어진을 모사한 것이다. 1928년 어진 모사의 주관화사는 김은호였으며 안명준과 백윤문이 수중화원으로 참여하였다.

비록 의궤는 아니지만 김은호가 1935년 4월에서 1936년 1월까지 신선원전의 세조어진과 원종어진을 모사한 사실을 기록한 『선원전영정모사등록』도 중요하다. 이때에는 장운봉이 조수로 참여하였다. 특히 1928년과 1935년의 기록에서는 소용 채색이 완전히 일본 이름으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

어진 모사에 사진이 범본으로 사용되었고, 장황에는 전적으로 일본인 표구사가 동원되었지만 형식은 조선왕실의 전통을 따른 점, 채색은 완전히 일본계이지만 배채법을 써서 전통방식으로 그린 사실들은 전통의 계승과 시대적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일제강점기 의궤는 조선시대나 대한제국기 만큼 풍부하고 연속성 있는 정보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의궤편찬의 명백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조선 건국 이래 왕실전례를 기록하는 전통의 의궤를 통해 얼마나 뿌리 깊게 정착되었었는지를 반증하는 사실이다.

Abstract

Jangseogak *Uigwe* Collections from Japanese Occupation Period a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History of Korean Art

Park Jeonghye*

This paper explores elements and sections from 37 *Uigwe* (Book of Court Rites) of 20 types, dating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at are of high relevanc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Korean art. These *uigwe* are in the collection of Jangseogak, the Joseon Dynasty's royal library,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study takes a particularly close look at the *uigwe* on the funeral of Queen Consort Sunheon (Sunheon gwibi: 1854–1926), which took place in 1911, the funeral of King/Emperor Gojong (1852–1919) in 1919 and the funeral of Emperor Sunjong (1874–1926) in 1926, and the *uigwe* on the enshrinement of memorial tablets of Gojong and Sunjong, as these records offer more information related to Japanese occupation-period Joseon art.

Details of royal ceremonies documented in *uigwe* records, that are deemed relevant for the understanding of artistic activity in this period, are the role played by court painters, the supplies they used and the folding screens used in the ceremonies. After the annexation of Joseon to Japan, *baengnyeol banchado*, corresponding to pictorial minutes of a ceremony, was replaced by *mun banchado*, or text-only minutes. The lists of court painters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f royal ceremonies were naturally succinct as well,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 names of court

* Professo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alligraphers like Baek Man-ok, Baek Man-gap and Park Yong-suk, and painters like Jeon Su-muk (1858-?), Seo Won-hui (1862-?), Yi Deok-yeong (1870-?) and Kang Pil-ju were mentioned in these lists. As for folding screens, 'sun, moon and five peaks' screens, peony blossom screens and *sobyeong* (plain white screens) customarily used in royal ceremonies, continued to remain in use, as this portion of Joseon's Confucian custom successfully resisted changes, apparently.

Two of the most interesting *uigwe*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re those relate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relocation of Emperor Gojong's portrait and creation of Emperor Sunjong's portrait, which are appended at the end of the *uigwe* on the enshrinements of their memorial tablets to royal ancestral shrine: *Gojong Bumyo Jugam Uigwe* of 1921 and *Sunjong Bumyo Jugam Uigwe* of 1928, respectively. The two records offer rather extensive details about the process, including the dates of creation of the portraits, names of artists who took part in their creation, rewards they received for their service and media and supplies used for painting and mounting the portraits. They relate, for instance, that in 1921, a new royal portrait hall was constructed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and portraits from the old hall were moved there, along with the portrait of King Gojong, which was until then kept in Junghwajeon Hall of Gyeongungung Palace. The records further inform that the portrait of Emperor Sunjong was created in 1928, based on a photograph of him taken when he was 36 years of age (1909). It is reported that Kim Eun-ho was the artist who supervised the royal portrait project of 1928, to which two other painters, An Myeong-jun and Baek Yun-mun, also made contributions.

Seonwonjeon Yeongjeong Mosa Deungnok, the record relating the circumstances of the reproduction of portraits of King Sejo and King Wonjong under a project which lasted from April 1935 to January 1936, is also a document of prime importance, even if not a *uigwe*. Jang Un-bong, it is said, served as the assistant painter for the project. A noteworthy fact is that both in the 1928 record and the 1935 record, all pigments are designated by their Japanese names.

Among the most notable differences from previous eras were the use of photographs as models for creation of royal portraits and the complete replacement of Korean artisan for mounting by Japanese mounter. The method of mounting, however, remained the method traditionally used in Joseon's royal court. Another important change was the employment of Japanese pigments. Here, too, a fine balance between change and tradition was achieved, as '*baechnae*,' a traditional coloring technique consisting in applying colors on the back of the silk, to

create a more nuanced tone.

Uigwe record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although not as complete or detailed as those from preceding eras, are a wonderful testimony to this enduring documentary tradition of Joseon's royal household, begun with the founding of the dynasty, centuries earlier.